

직원의 프로그램 무단사용과 감독책임



박 상 오 변호사의

콘텐츠 법률 산책

저작권 침해 등의 행위는 개인적으로 이뤄지기도 하지만, 회사 임직원의 업무 등의 과정에서 이뤄지기도 한다. 이 경우에 행위자(임직원 본인)가 저작권 침해 등으로 처벌을 받는 것과 별개로 회사의 경우에도 저작권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부담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우리 저작권법은 저작권 침해 등의 범죄와 관련해 회사에 대한 양벌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저작권법 제141조는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이 장의 죄(저작권법 제11장 범죄)를 저지른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회사의 임직원이 저작권 침해 등을 저

지르는 경우에 회사는 위단서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한 임직원과 동일하게 저작권 침해 등에 따른 처벌을 받게 된다.

실제로 최근 대법원은 임직원이 불법 라이선스 프로그램을 사용해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한 사안에서, 회사의 감독 책임을 인정해 회사에 대해 벌금형을 부과한 원심을 판결을 상고기각을 통해 확정했다(대법원 2024. 12. 26. 선고 2024도12890 판결). 위 사안에서 피고인은 불법 라이선스 프로그램을 통해 자신의 컴퓨터에 설치된 프로그램의 라이선스 정보를 권한 없이 변경한 후 이를 사용했고, 해당 행위가 누구든지 정당한 권한 없이 고의 또는 과실로 기술적 보호조치를 제거·변경하거나 우회하는 등의 방법으로 무력화해서는 안 된다는 저작권법 제104조의2 규정을 위반해 문제가 되었다.

위 사안에서 회사 측은 주의·감독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회사가 사내 게시판에 불법 프로그램 사용을 금지하는 게시물을 게시한 사실이 있기는 하지만 이는 사건 발생일로부터 무려 8년 전의 게시물인 점 ▲회사가 저작권법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업무에 관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했다고 볼 만한 다른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회사가 피고인의 범행을 방지하기 위해 해당 업무에 관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는 사정이 보이지 않으므로, 회사는 피고인의 범행과 관련해 저작권법 제141조에 따라 양벌규정의 적용을 받아 벌금형으로 처벌되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회사에 대해서도 3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위 사례를 통해서 확인되는 것처럼, 회사는 임직원의 저작권 침해 등 행위와 관련해 원칙적으로 형사책임을 부담하게 되고, 회사가 형사책임을 면하기 위해서는 해당 업무에 관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는 사정을 입증해야만 한다. 이러한 주의·감독의무에 대한 입증은 형사책임 뿐만 아니라 민사소송 등에서 사용자책임이 문제될 때에도 중요한 방어방법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회사로서는 ▲주기적으로 저작권 침해방지를 위한 교육을 실시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회사의 전반적인 시스템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만약의 상황에서 회사 내 저작권 침해 등에 대해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는 사정을 입증하기 위한 근거를 미리 마련해 둘 필요가 있다.

/법무법인바른

3%를 위한 채무조정 프로그램



기지 수집

나 유 리
(금융부)

10년전 유기건을 입양했다. 1살도 채 되지 않은 강아지가 어찌나 이쁘던지. 자동차의 경적 소리에 놀라 쓰러질까. 줄이 풀려 다른 곳으로 가면 어찌나하는 우려에 2년간 산책을 하지 않았다. 사회생활 시기를 놓쳐서 일까. 이제는 개가 되어 버린 그는 다른 개와 다르게 좋아하는 표현을 으르렁으로 표현하고 사람들이 이쁘다고 해도 짖는다. 옛말에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담글까’라는 말이 있던가. 일어나지 않을 사고에 대한 우려 때문에 더 행복할 수 있는 상황을 놓치게 만든 셈이다.

정부에서 소상공인의 채무조정과 취약

계층의 재기를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소상공인의 대표적인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은 대상범위를 확대하고, 기업, 지자체와 협업체 건강검진부터 사업정리컨설팅, 폐업(원상복구 비용)을 지원한다.

취약계층도 장기 연체일 경우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1인당 월 소득이 중위소득의 60%(약 143만원)를 넘지 못하고, 대출을 상환할 만한 재산이 없는 경우 대출 원금의 80%를 깎아준다. 10년간 나눠 갚을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이 나오면 늘 따라붙는 말이 있다. 모럴해저드(moral hazard·도덕적해이)다. moral, 세상의 옳고그름 혹은 도덕적인 것에 hazard, 해를 일으킬 수 있는 잠재적인 특성이나 상황을 말한다. 정책 의도와 달리 개인의 이익을 위해 최선의 의무를 하지 않을 이들을 우려

하는 의미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정책국장이던 시기 ‘새출발기금’을 발표하며 “우리는 97%와 98%의 세상에 살고 있다”며 “대한민국의 2000만 명 차주 중에 신용불량자는 70만 명, 3%다. 소상공인·자영업자 330만 명 중에 신용불량은 10만 명이다”라고 말했다.

누군가는 장을 못 담글 만큼 구더기가 무서울 수도 있고, 그 구더기가 무서워 장담그는 시기를 늦추려는 이들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구더기가 무서워 장을 못담그거나 시기를 늦추는 행동은 외려 더 큰 비용을 부담케 할 수 있다. 3% 내에서 나타날 모럴해저드가 무서워 법안·정책을 늦추는 것은 더 큰 경제회복을 늦추는 길이다. 정책 본인의 이익 때문에 3%가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빼앗지 않길 바란다.

/yul115@metroseoul.co.kr

오늘의 운세 9월 1일 (음 7월 10일) http://www.saju4000.com



36년생 닭 날이나 칠성 기도를 해보자. 48년생 투기만을 도모하면 가난은 이미 싹트고 있는 중. 60년생 비빌 언덕이 있었으면 좋겠다. 72년생 기쁨이 넘치는 순간 근심. 84년생 거울을 보니 이태백의 백발삼천장白髮三千丈 시가 생각.



37년생 오늘은 유난히 바쁜 날이다. 49년생 먼 길을 돌아서 원점으로 복귀. 61년생 영업의 실적에서 이득이 보이니 실망하지 않도록. 73년생 내 마음은 호수 같이 평온. 85년생 초월자나 절대자는 사람과 다른 형상으로 존재하는가.



38년생 까닭 없이 아들 집을 찾아가서 머느리 불편하게 하지 않도록. 50년생 정신의 세계가 중요하듯 물질도 중요. 62년생 내일을 위해 오늘은 참고 견뎌라. 74년생 하루 먹는 양은 많아야 세끼인데. 86년생 좋아하는 일을 맡게 된다.



39년생 두려움이 기도를 거처면 언제나 용기가 된다. 51년생 평온한 바다를 떠다니는 기분. 63년생 인생 전체를 놓고 보면 적성도 중요하지만, 직업이 있어야. 75년생 지난 일은 후회해도 돌이킬 수 없다. 87년생 자세를 낮추고 겸손하게.



40년생 이성문제는 스스로 억제해야. 52년생 나무자주 만나면 친한 사이도 도리어 멀어진다. 64년생 실적을 위해 친구들과 노는 것은 포기. 76년생 퇴근하고 미장원 가서 파마머리를 해본다. 88년생 길이 막혔으니 새로운 길을 모색해야.



41년생 반려동물에 대한 사랑과 관심이 지대해지고 있다. 53년생 긍정적인 사람은 한계가 없다. 65년생 술을 마시면 취하는 게 당연하니 자제를. 77년생 뛰다 보면 가슴 벅찬 행복이 온다. 89년생 직장에 도리를 하면서 집안일도 신경을.



42년생 가정사의 대사를 치를 때는 반드시 길한 날을 잡았다. 54년생 맑은 풍속을 따라야 생활이 들뜨지 않는다. 66년생 같은 유의 사고는 왜 계속 반복되는 것인지. 78년생 행동으로 보여줘라. 90년생 처세에 어두운 사람도 있기 마련.



43년생 상처도 시간이 가면 새살이 돋는다. 55년생 부동산문제는 시대 탓으로 질곡에 빠지면 우울증 온다. 67년생 5시 이후 차량 안전주의. 79년생 개운이란 신비롭고 거창한 것이 아니다. 91년생 최소한 한 가지 일에는 능통해야 한다.



44년생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으니 희망을 버리지 마라. 56년생 멀리서 친구가 찾아오니 기쁘다. 68년생 사건에 대해 이성 점을 찾아야. 80년생 점을 미신으로 치부하는 일이 없어야 하는데. 92년생 총동적인 과소비를 조심.



45년생 인생의 수업료 낸 생각으로 자기 자신을 이해하자. 57년생 머리에 저장해야 미래의 후원자가 될 터. 69년생 이순신 장군은 주역에 익숙한 군인이다. 81년생 집을 나가서 민망한 일을 조심. 93년생 세상에 나쁘기만 한 일은 없구나.



46년생 누구에게나 비춰주는 태양에 감사. 58년생 내가 투자한 것인지 도박을 한 것인지 되돌아보라. 70년생 황재 운이 있으니 부모님의 재산 증여도 있다. 82년생 변명과 사과의 여지도 없이 뻔뻔하지는 말자. 94년생 너무 참으면 병이 된다.



47년생 아흔아홉 섬 가진 사람이 한섬 가진 사람에게 꾸어 달라 한다. 59년생 부기는 돌고 도니 자신의 실천 여부로 결정. 71년생 술을 적게 마시면 실수가 적어진다. 83년생 취미가 정해질 것. 95년생 가계부를 쓰고 저축으로 불의의 근심을 방지.

김상회의四季

숙명론과 운명론

숙명과 운명은 비슷한 뜻이면서도 다르다. 단어도 다르지만, 숙명은 조금도 바꿀 수 없는 운명의 궤도에 한다면 운명은 마음을 어떻게 가지고 행하냐에 따라서 궤도를 다르게 할 수 있다는 의미가 있다. 그러니 숙명이 운명이나 아니면 운명이 숙명이나를 따지는 것도 부질없을 수가 있다. 원인이 있어 결과가 나오는 것이지만 결과는 분명 개인의 의지와 그의 의지에 따른 노력의 결과로 달라질 수 있다. 이런 점은 많은 사람을 상담하다 보면 더욱 실감하게 된다. 사주 분석은 논리에 의해 기승전결을 얘기할 수 있는데, 감명되는 내용에 따라 결정 방향을 설명하다 보면 누구는 따르고 누구는 무시한다. 사주감명이 정답은 아닐지 몰라도 참고해서 손해를 볼 것은 없다는 것이 필자의 판단이다.

그러나 대체로 적극적이며 능동적인 사람들은 의외로 사주감명의 결과를 잘 받아들이며 잘 따랐다. 반대로 수동적, 체념적인 사람들은 상담결과에 부정적인 모습을 보이며 의심의 마음을 보이며 사무실을 떠나곤 했다. 혹자는 필자가 아전인수적인 해석을 한다고 볼 수도 있겠으나 상담결과를 따른 사람 중에 고맙다며 다시 인사를 해오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것이 지금까지 필자의 경험치인 것이니 사실이 그렇다. 인생살이는 한 번이고 그 한 번의 기회와 시간을 최대한계효용으로 살아야 하니 믿고 따르는 태도는 굳이 낭비가 아닐 수 있다. 역학에 매진해 온 역학도들 중에서도 사주의 영향을 절대적이라고 보지 않기도 하고, 이구동성으로 절대적 신신의 경지라고 얘기하는 두부류다. 인생사에서 어떤 상황이 닥치더라도 흔들리지 않고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는 사람들은 사주에 연연해 할 것은 없다. 마음이 주인이기 때문이다. 다만 운명을 숙명처럼 만들 수 있는 것은 그 정도의 단심과 노력을 기울여야만 한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희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행·편집인	이장규	편집국장	윤휘중
인쇄인		중앙일보(주)	
광고문의 / 독자센터 02)721-9851, 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서울 가00206 2002년5월28일 제5744호			
일간 메트로경제 서울 가50111 2017년3월09일 제1848호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매일매일 두뇌트레이닝

새벽하루

스도쿠365

3X3 스도쿠 X는 가로세로 3X3칸스에 1부터 9의 숫자가 대각선 회색 칸에 1부터 9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문제출제: 손호성

새로운 고난이도의 월드마음을 즐겨보세요

http://www.argo9.com

할인도서

스도쿠 365

153문제

결합형 스도쿠

153문제

컬러 스도쿠 110

초·중·고·대 120

5 3 4 6 8 2

7 2 3 4

1 3 6 8

2 5 1 5 6

3 7 4 5 8 9

3 5 4 6 2 8

8 9 6 2 9

4 6 8

5 6 3 2 4

2 5 8 1 4 6